

'3퇴'와 평안

제127기

'9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년 7월 3일까지 이미 1억 4천 131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1억 4천여 만 중국인, 3퇴하여 광명을 선택

2004년 말 '9평 공산당'이 발표되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이 세상에 널리 전해 집에 따라, 갈수록 많은 민중이 진상을 분명히 알고 중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1억 4천 1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 대기원 웹사이트에서 3퇴(중국 공산당, 단, 대에서 탈퇴)를 성명함으로써 이 특수한 역사시기에 자신의 이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였다.

4천여 명이 동시에 '삼퇴'하여 광명을 찾다

2013년 6월 중순, 캐나다 토론토 탈당센터는 대륙 광동 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전화를 직통으로 받았다. 그는 예전에 전화로 직접 탈당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4천여 명을 단체로 3퇴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천인공노하고 있고요, 살아갈 길이 없는 국민은 속이 상해 모두 탈퇴하려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당신들만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합니다." 그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탈당 도우미에게 남겨 놓고는, 그들 모두를 여 씨, 오 씨, 위 씨의 가명으로 3퇴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탈당 도우미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친한 사이인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남방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많은데 어떤 때는 만명씩입니다. 그 만 명이 모두 탈당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그들의 이름을 다 대라고 하면 너무 곤란합니다."

10일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추진 상황을 물

미 국회 양당 제안: 강제장기적출은 즉시 중지해야

[밍후이왕] 2013년 6월 27일 미국 국회 하원의 중동/북아프리카 소조 회장인 플로리다 공화당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Ileana Ros-Lehtinen) 의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인 뉴저지 민주당 로버트 앤드류(Robert Andrews) 의원은 공동으로 281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들은 결의안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범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즉시 금지할

것을 중공에 촉구했다. 또 미국 국무원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부도덕한 장기이식에 참여한 자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중공에게 14년간 지속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범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 2013년 6월 7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란초 미라지시 서니랜드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에 인근 지역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은 시진핑이 머무는 호텔과 정상회담이 열리는 휴양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년간 중국에서 지속되는 파룬궁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하고, 박해자를 법에 따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었고,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기뻐했다.

베이징 은행 지점장의 기우

올해 3월, 베이징의 어느 대형 은행 지점장이 탈당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과 은행장 몇 명을 포함한 업계 내 친구 12명을 '3퇴' 시켜 달라고 했다.

"작년에 백룡 백화점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맞아 이야기를 3시간 정도 하다가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쩐싼린 하오(真善忍好), 파룬파파 하오 (法輪大法好)'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년을 염하면서 늘 이 아홉 글자를 적었는데 매번 적고 염하고 나면 에너지가 충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잠을 잘 자지 못해 약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생활 각 방면이 아주 순조로워졌습니다."

"현재는 저의 부모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염하고 적지 않은 친구들도 염합니다. 저는 만나는 고객한테도 제가 쓴 아홉 글자를 보여 줍니다. 업계 내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더니 따라서 염하고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름을 써 주면서 '3퇴'를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명단이 저의 손에 있은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백룡 백화점에 갔지만, 진상을 알려 준 그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어디에 가야 탈퇴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단지를 받고 나서야 탈당 직통전화를 알고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요, 권세요 하는 것은 모두 뜯구름이고 피안(彼岸)으로 회귀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부좌를 할 수 있고, 앓기만 하면 조용해지고 사상이 텅 비는데 느낌은 불가사의하게 좋습니다."

그는 연락 번호를 남기며 파룬궁 연공 비디오를 얻기를 희망했다. (파룬궁의 모든 서적과 기타 자료는 봉쇄사이트를 뚫고 파룬파파 사이트 www.falundafa.org에서 무료로 내려 받기 바란다).

서양 속담에 잘못은 일시적인 유감이지만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원한 유감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기회를 잡고 선량과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서쪽에서 온 사악한 유령('공산당선언')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광명과 이름다움으로 인도하자.

갑상선 암을 앓았던 환자의 감동

[밍후이왕] 2010년 4월 베이징 301 병원에서 후두염을 치료받던 나는 ‘갑상선 암이 임파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삽시간에 거대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나는 휙휙거리며 병원을 걸어나와 대문 앞에서 남의 이목을 상관하지 않고 하늘을 보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악해 병치례가 잦았다. 두 번 수술했고, 폐결핵, 부인병, 잦은 발열 등으로 편하게 지낸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40대에 벌써 이런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나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늘을 원망했고, 불운하다고 원망했다. 결국 암 수술을 했고, 집에 돌아간 후 매일 한 더미씩 먹어야 할 약을 보니 기분이 참담했다. 가무에 능했던 나는 수술로 목소리를 잃었고, 침도 나오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는 소리도 났다. 거기에 등과 관절까지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짜증스런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다.

그때 잘 아는 언니 한 분이 내가 병가를 내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파룬궁(法輪功)을 연마하라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연공을 시작하고 암, 심한 피부병, 당뇨병이 나은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나는 1999년 7월 20일 전에 연공한 적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하고부터는 하지 않았다. 언니의 말을 듣고 나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언니네 집에 가서 살 다시피 했다. 식사 시간만 빼고는 ‘전법륜’을 읽고 사존의 국외 설법을 보았다. 볼수록 보고 싶어 져 볼수록 내려놓지 못했고, 다섯 세트 공법까지 배웠더니 나날이 건강이 좋아졌다. 주위에 무수한 파룬이 늘 돌고 있는 것 같았고,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으며, 몸에 있는 더러운 물건이 한층 한층 아래로 벗겨지는 것 같아 전에 없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언니는 “이건 사부님께서 관정해 주시는 거야. ‘관정’은 불가의 전문용어인데 신체를 정화해주고 병을 제거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다 좋은 일이야. 공을 생각하지 말고 수련에 만 마음을 잘 쓰면 사부님께서 너를 관리하실 거다”고 말해 주었다.

3개월 동안 나는 병은 거의 잊다시피 하고 매일 법 공부와 연공에 몰두했다. 그리고 나는 점차 조조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겨우 낼 수 있었던 목소리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격도 좋아져 일에 부딪히면 참을 수 있었고 ‘진선인(眞善忍)’으로 자



사진: 2013년 6월 23일 미국 버밍햄시 제4회 건강 생활 활동에서 현지 파룬궁 수련생이 시민에게 파룬궁(파룬따파)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은 상서롭고 아름다운 파룬궁에 이끌려 가던 길을 멈추고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

신을 요구했다. 병색이 완연했던 누런 얼굴도 점차 희고 깨끗해 지면서 혈색이 돌았고 발걸음도 가볍고 몸에 힘이 생겼다.

나에게 발생한 큰 변화에 감개무량함을 느낀다. 세상의 그 어떤 언어를 다 사용해도

사부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내 생명이 가장 무력하고 희망 없을 때 대법을 얻었고 그때부터 의지할 곳이 있게 되었다. 나는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누가 신불이 없다고 했는가? 누가 기적이 없다고 했는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임파로 전이된 암세포가 빠르게 머리까지 퍼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의 몸에서 파룬따파의 위대함과 초상함이 증명되었고, 공산당의 ‘무신론’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나의 친척, 친구, 동창들은 모두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건강이 좋아진 것을 안다. 나의 체험을 본 친구 네다섯 명이 수련을 시작했다. 그 중 한 친구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련성 목 기울임’ 병으로 밀하는 것도 어려워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전법륜’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법을 배우고 연공하여 1개월 만에 목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입원비와 약값으로 가산을 탕진케 한 ‘경련성 목 기울임’ 병이 파룬궁 수련 후 기적처럼 나아 다시 한 번 파룬궁의 신비를 증명했다.

'암도 몸의 살'이라는

것에서 중공을 인식

[밍후이왕] 중국 대륙은 세계 최고의 오염지역이라 암 발병률도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암’을 찾아보니 ‘암(Cancer)은 악성종양이라고도 하며, 세포 성장 증식 체제가 통제를 잃어 유발하는 질병이다. 암세포는 통제력을 잃은 생장 세포가 국부적으로 주변 정상 조직에 침입하여 체내 순환계통 혹은 임파 계통을 따라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전이한다.’ 여기까지 보니 현재의 중국 대륙이 생각났다. 탐관오리가 곳곳에 있고, 백성이 단체로 죽고 상하며, 법률은 돈만 알고..... 이것은 암 증상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현상을 빚어낸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중공이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모두 중공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삼대 베듯이 죽인다. 역대 운동에서 8천여 만 중국인을 살해했고, 특히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먹은 죄행이 폭로된 후, 선량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왔다. 중국인은 옥을 더욱 노골적으로 하는 중에 ‘중공’ 이 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공을 욕하다가도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라는 말을 하면 또 중공을 수호한다. 원인은 중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중공과 중국이 같지 않으므로 중공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공은 바로 중국 사회의 악성종양이며, 그의 기형적인 체제는 사회의 체제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다. 중공의 발전 과정은 암과 똑같은 것으로 영원히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 중공의 통치를 수호하는 사람과 ‘암도 몸의 살’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말이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떼어버리지 않으면 시시각각 당신의 생명을 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탈당, 탈단, 탈대를 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세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좋은 세포는 천멸(天滅) 중공 시기에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